스트릿 재생프로젝트
_ 후쿠야마시 토오리쵸 스트릿 가든

Street Regeneration Project_ Tōrichō Street Garden in Fukuyama City

글. 송준환_ Song, Jun-hwan
야마구치 국립대학 공학부 조교수

최근, 도심부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상업지의 매력향상,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로 공간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세계각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1월에 오픈한 서울의 연세로 또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통체증과 지역쇠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정 구간에 대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만을 도입하는, 이른바 트렌짓 몰(Transit Mall)을 계획하여 일정부분의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듯, 대도시 도심부에서는 공공공간을 보행자에게 되돌려 주는 건축 및 도시 계획적 시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지구 포텐셜이 부족한 지방도시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속에서 어떻게 쇠퇴하고 있는 상점가를 다시 재생하여 활기를 재창출해 나갈 것인가'가 큰 이슈로서, 1990년대의 교외형 쇼핑센터의 진출에 따른 중심시가지 상점가의 쇠퇴현상은 일본의 여느 지방도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지방도시 중의 하나인 히로시마(広島)현 후쿠야마(福山)시에서는 2016년 후쿠야마시 제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부터 중심시가지의 혼도오리(本通) 후네쵸(船町) 상점가로를 대상으로 상점가 아케이드의 개수 및 가로 공간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되어, 2016년 7월에 오픈하였다.

■ 스트릿 재생프로젝트의 계획경위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된 이곳은 에도(江戸)시대부터 후쿠야마성의 성하마을로서 형성된 상인들의 마을로서 「토오리쵸(とおり町)」라 이름이 지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80년대에는 활기 있는 상점가로 발전하였으나, 2011년 시점에 빈 점포가 30개가 넘는 등, 쇠퇴한 상점가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후쿠야마시와 상점가 조합에서는 가로재생프로젝트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33년 전에 만든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상부에 존

그림 1) 토오리쵸 스트릿 가든의 전경

재하는 고압선 전신주를 철거하여 지중화 하는 방향으로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을 도출했다. 하지만, 전체 설계와 감수를 맡은 UID 건축사사무소 마에다 케이스케씨(前田圭介)는 단순히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걷어 내는 것이 아니라, 아케이드 또한 이 상점가의 기억을 담고 있는 소재로 판단하고, 아케이드를 지지하고 있는 철 기둥에 새로운 풍경을 재창조하는 방향으로 상점주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현재의 계획을 추진하게 된다.

■ 녹슨 기둥의 재활용을 통한 스트릿 공간의 재생

33년 전에 만들어진 아케이드의 철로 된 기둥의 기억을 되살리면서, 전체 440m의 상공에 7000개의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설치해, 하나의 상점가로서 새로운 연대감을 연출하고 있다. 기존의 철 기둥을 남기고, 상부를 덮고 있는 아케이드를 철거하면, 상공에는 전선과 전주, 간판 등의 보기 흉한 경관이 남게 되는데, 기존 기둥의 주각보강과 함께 기둥의 머리 부분의 짧게 하고, 전선을 모두 남북방향으로 가로변과 직각이 되게끔 재배치하여 경관을 재정리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스와 같은 스테인리스 와이어 덮개는 햇빛과 바람에 의해 빛의 음영과 함께 리듬감 있는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그림1).

공공의 도로 상에서의 와이어로 만들어진 반-아케이드 공간의 시도는 일본 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시도로서 도로관리자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본 프로젝트의 공공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서 2년간에 걸쳐 협의를 실시하였고, 이에 와이어의 정기적인 관리와 연도별 점용허가의 실시라는 조건 하에 계획이 성사되었다.

특히, 기존의 76개의 철 기둥의 주변부에는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단풍 등의 식재를 배치하고, 차선 또한 감소시켰다. 그리고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통과교통을 가능한 한 배제시키는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각 기둥마다 식재를 배치하여 휴먼 스케일의 따뜻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데, 행정에 의해 배치된 식재들을 향후, 상점주들이 조직을 형성하여 관리를 실

그림 2) 식재공간과 연계한 건물저층부 리노베이션

시해 나갈 예정이며, 나무를 잘 키워 나가기 위한 연구회, 나무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그린 패트롤부회를 조직하는 등 조합원들이 분담하여 식재를 연구하고 유지/관리해 나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가로변의 상점들 또한 오래된 건축물들의 저층부를 개수 또는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연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실제로 디자인 협의회를 설치하여, 각 점포의 간판 등의 경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위한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며, 단순한 가로공간의 현상유지만이 아니라, 이벤트 등, 새롭게 조성된 스트릿 공간을 어떻게 이용 및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실시하고 있다.

■ 빈 점포의 재생을 통한 커뮤니티 비즈니스공간의 창출-「Umbralla」

본 스트릿의 북부에는 빈 점포를 재생한 커뮤니티하우스인「Umbralla」가 2016년 4월에 오픈하였다. 이곳은 시가지중심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 NPO법인 와쿠와쿠마을회(ＮＰＯ法人わくわく街家)연구소와 후쿠야마 혼도오리 상점가 진흥조합이 국가의「지역 상업자립 촉진사업」제도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여름부터 시민들의 힘을 모아 리노베이션을 실시하여, 실현되었다. 규모는 목조 2층의 연면적 약 330㎡로, 한때 우산 가게였던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벤트 및 전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시설 운영 및 관리는 지역의 회사원과 대학생들 약 20명이 담당하고 있다.

1층은 카페와 이벤트 스페이스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한편에「박스 숍」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그림3). 한 변의 길이가 45cm인 박스 34개로 이루어진「박스 숍」은 시민들의 챌린지 숍으로서, 한 개의 박스 당 600엔에서 800엔(약 6,000원~8,000원)을 지불하면 개개인의 수공예품 또는 작품 등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그마한 공간 마련을 통해 지역 시민들의 갤러리로서 지역 활기 창출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개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층에는 6개의 작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시와 판매 그리고 오피스로 이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림 3) 커뮤니티하우스「umbralla」내외부 전경

후쿠야마시는 인구 약 45만의 중소도시로, 우리나라 평택시 정도의 인구 규모를 지닌 도시이다. 대도심부와 달리 지역 포텐셜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로공간에 대한 물리적 정비만으로 새로운 보행흐름을 유도해 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과 지역 주민 및 NPO 단체 등 많은 관계자들이 함께 가로공간을 재생해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행동이 지속적인 가로공간의 재생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등 사회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빈 점포 등을 잘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류의 장,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기회의 장으로서 재생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거점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앞으로 지역의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新建築, 福山市本通·船町商店街アーケード改修プロジェクト—とおり町Street Garden—, 新建築社, 91(9), pp.92-97, 2016
2. 小川貴士·岡辺重雄·奥山健二, とおり町ストリートガーデン計画を契機とした高齢者の居場所形成への考察:福山市本通商店街を事例として, 日本建築学会中国支部研究報告集, 39, pp.865-868, 2016
3. 뉴스기사, 空き店舗改装, 世代集う拠点に市民有志, 福山本通商店街で運営, http://www.wam.go.jp/content/wamnet/pcpub/kourei/fukushiiryounews/20160420_101000.html (접속일 2016.12.5)